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
오후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

※ 단,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는 가정의학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 T. 051) 933-7969

완화의료센터 입원 상담 T. 051) 933-7133

완화의료센터 입원 진료예약 T. 051) 933-7087

| 찾아오시는 길 |



- 서면방면 20, 24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동래방면 131번
- 해운대방면 39번
- 마을버스 남구2, 2-1, 8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 051 933 7114 F 051 932 8600

www.bsm.or.kr

2017년 봄호 • 통권10호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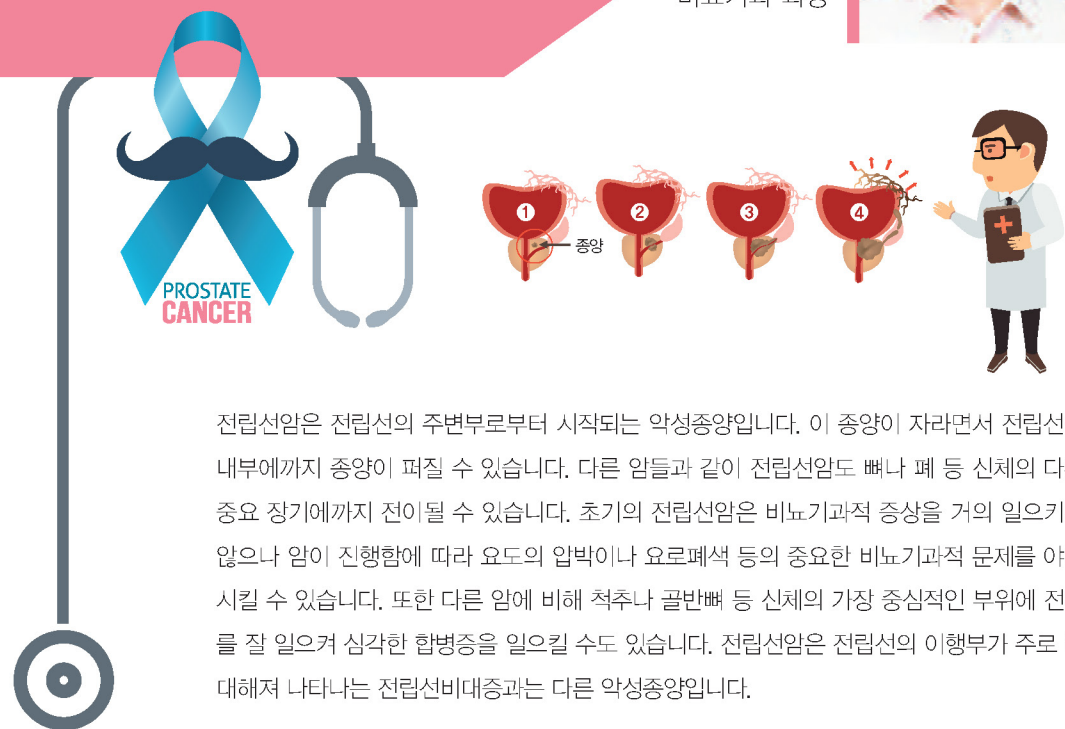
02	권두 이야기 연탄 한 장
	팀원들의 이야기
04	① 전립선암은 어떤 질환인가요? / 이준택 비뇨기과 과장
06	② 암환자의 생활관리
10	③ 가정호스피스를 다녀와서 / 김수언 수간호사
11	환자와 가족의 사랑 이야기
12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1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NEWS
14	후원회 가입 안내
15	이용 안내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 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전립선암은 어떤 질환인가요?

이준택
비뇨기과 과장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주변부로부터 시작되는 악성종양입니다. 이 종양이 자라면서 전립선의 내부에까지 종양이 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암들과 같이 전립선암도 뼈나 폐 등 신체의 다른 중요 장기에까지 전이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전립선암은 비뇨기과적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나 암이 진행함에 따라 요도의 압박이나 요로폐색 등의 중요한 비뇨기과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암에 비해 척추나 골반뼈 등 신체의 가장 중심적인 부위에 전이를 잘 일으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이행부가 주로 비대해져 나타나는 전립선비대증과는 다른 악성종양입니다.

전립선암은 왜 발생하나요?

전립선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암의 발생 빈도는 인종이나 종족, 또는 가계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환경적인 면이 크게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요인 중에서도 특히 음식류(육류, 고지방음식)가 영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비뇨기계종양 중 하나로서, 미국에서는 1997년에만 약 380,000명이 전립선암으로 새로이 진단되었고 41,800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하여 폐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악성종양입니다. 또한 전립선암은 50세 이전에는 흔하지 않은 질환이나 50세를 넘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노인남성의 수가 급증하고 최신 진단장비의 도입과 함께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전립선암으로 새로이 진단되는 환자수와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립선암의 증상은?

전립선암은 그 크기가 작고 초기 암일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립선암이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또는 암과는 별도로 전립선비대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배뇨곤란, 빈뇨, 혈뇨, 배뇨 시 통증, 배뇨 시 약한 오줌줄기, 또는 배변 시 불편 등입니다. 또한 전립선암이 기타 장기, 특히 골반 뼈나 척추뼈에 전이가 될 경우에는 심한 골통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하반신마비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진단은?

의사는 먼저 환자의 병력과 현재의 증상, 또는 특별한 비뇨기계통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검사를 거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몸 안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직장에 넣어 전립선 부위를 직접 만져보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전립선의 크기, 모양, 촉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직장수지검사라고 하는데, 특히 단단하거나 울퉁불퉁한 경결과 같은 이상병변이 확인되면 전립선암을 추정 진단할 수가 있으며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피검사를 통해서 혈청 전립선특이항원검사나 경직장초음파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세가지 기본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전립선암의 확인을 위해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해서 최종 진단을 합니다. 전립선암이 진단된 후에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정도(병기)를 결정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컴퓨터단층촬영(CT-Scan),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방사선동위원소 골주사(Bone Scan)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정도

A기 일반 진단검사로는 전립선암이 발견되지 않고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또는 혈청 PSA수치가 단순히 증가되어 전립선 생검으로 전립선암이 발견된 상태로서 전립선 내에만 국한된 전립선암.

B기 직장수지검사에서 종양이 촉진되며, 전립선 밖으로는 암이 퍼지지 않은 전립선암.

C기 전립선암이 전립선피막을 넘어 전립선 주위조직으로 퍼진 상태로서 정낭이나 방광 등에 전이된 전립선암.

D기 전립선암세포가 골반림프절 등에 전이되거나, 뼈, 폐 등 신체의 다른 장기로 원격전이된 전립선암.

전립선암의 치료

전립선암은 그 진행정도 및 나이, 신체건강상태에 따라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호르몬 치료, 방사선치료 등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그 진행정도가 느린 암으로 특히, 초기에 발견되면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으며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한 약물치료만으로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주기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배뇨곤란 등 이상소견이 있으면 곧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조: 대한비뇨기과학회 홍보자료]

암환자의 생활관리



암을 진단 받았을 때

01

암 진단이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을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암을 진단 받고 있지만, 많은 환자가 치료를 통해 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은 난치병이긴 하지만,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암 진단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기 암 환자라도 100% 사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관적인 경우라도 살아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내가 생존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십시오.

02

암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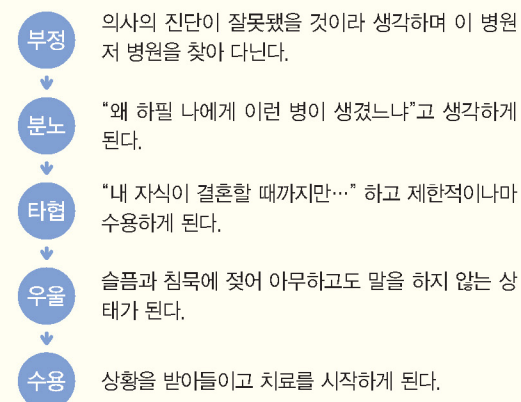
암은 수두나 독감과는 달리 전염되지 않습니다. 즉, 암 환자가 이용하는 물건을 함께 이용한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암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가족 중 누군가 암을 앓게 된다면 나 역시 암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게 될 수 있

습니다. 이때는 걱정하는 대신,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 의료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의료진들은 암이 가족 사이에 전염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며, 나 또한 내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3

암 진단 직후 환자가 겪는 심리 상태를 이해하십시오

암을 진단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는 다음과 같은 심리 상태를 차례로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후에야 진정한 치료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다섯 단계의 과정을 겪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예후 또한 좋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환자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04

나의 행동이 가족을 암에 걸리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예전에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암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족이 암에 걸리는 것을 내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태도는 환자에게나, 환자를 돌보아야 할 가족에게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환자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십시오.

05

중요한 질문은 담당 의료진에게 하십시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와 가족이 느끼는 혼란과 궁금증에 대해 가장 많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담당 의료진입니다. 암의 상태, 치료 방침 및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담당 의료진만이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하면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의사 교환을 충분히 하는 것은 의료진과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06

올바른 암의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가 암 진단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암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암의 정제와 치료법에 대해 정확히 알면 나와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에도 쉽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암에 대한 기사나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가장 최신 내용을 선택하십시오.

암 치료법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몇 해 전의 내용들은 이미 과거의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홍수 속에 암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나, 많은 경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상업적 목적의 잘못된 정보들도 섞여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외과적, 내과적 방법 등 교과서적인 암 치료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듣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진과 치료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십시오.

07

가족 가운데 선장을 정하십시오

암과 싸우는 여정은 크고 작은 망설임들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환자와 가족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선, 가족 중에 선장을 정하십시오. 암을 진단 받으면 주변에서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수를 돌 것입니다. 투병 기간 또한 짧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며 방향을 잡아갈 선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고민하십시오. 주변에서 아무리 결정을 재촉한다 해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긴 여정의 선장이 따로 있다고 해도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암에 걸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암 치료를 시작할 때

01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은 정말로 낮게 합니다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현대 과학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념과 치료 효과의 상관관계는 실제 치료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치료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건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머릿속에 그리는 모습대로 변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징인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암세포 말고도 빨리 자라는 세포, 즉 머리카락 세포, 구강이나 식도, 장 점막의 세포, 골수의 조혈모세포 등이 항암제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탈모, 점막염, 설사, 골수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약을 함께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강구할 것입니다. 부작용은 환자의 몸이 암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빠진 머리는 6개월 후면 다시 자라납니다. 피부색이 변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건강을 회복한 후에 두 배로 갚으면 됩니다.

03

치료 중에는 '열심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많은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또한, 항암치료는 체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체중이 감소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겠다”며 식사량을 줄이기도 하는데, 이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입니다. 항암치료는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하는데, 손상된 세포들은 스스로를 복구하기 위해 아낌없는 영양분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항암치료가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많이 먹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정상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한 칼로리가 포함된 식사를 하십시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를 2~4kg 정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치료 후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가장 좋은 단백질 음식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등입니다. 셋째,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비타민과 무기질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으므로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을 되찾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회복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걸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병을 부른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식생

활과 규칙적인 운동 등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은 최대한 줄이십시오. 흡연자라면 지금 당장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무수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가 암환자임을 밝히고 정중하게 꺼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05

의료진을 만날 때는 항상 질문할 목록을 준비하십시오

환자는 병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의료진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요청하십시오. 지혜로운 환자와 가족들은 진료를 받으러 갈 때 항상 질문할 목록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환자에게 계속되는 증상과 새롭게 나타난 증상, 책을 통해 얻은 정보나 다른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상담이 끝나면,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의료진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06

경험자의 체험담을 귀담아 듣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암을 치료중인 사람이나, 치료를 도와주는 환자 가족들의 체험담을 많이 듣게 되면 투병 의지를 북돋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암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므로 나에게 보탬이 될만한 것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나의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 정확히 말해줄 수는 없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담당 의료진만이 현재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 그것은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07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힘겨운 투병과정을 통해 삶이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씩씩하게 병을 이겨내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워 행복하다고 하고,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서 행복하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암과의 투병은 정신세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암 환자이지만, 바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의 삶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으면서 후회와 불안감으로 이 세상과 단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어버린 삶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국립암센터 ·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가정 호스피스를 다녀와서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이지만 아직 호스피스 병동에 입문하지 못한 나에게 가정 호스피스를 체험할 기회가 생겼다. 대학원 다닐 때에도 가정 간호와 가정 호스피스의 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가정 호스피스를 실습한 곳은 울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울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가정 호스피스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병상 수 12bed에 비해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가 2명이라 의아해 했었으나 곧 그 지역 지도를 보고 알 수 있었다. 보통은 그 기관에서 정한 왕복거리나 시간으로 환자를 결정하지만 울산과 인접해 있는 경주와 언양 지역의 환자들의 도움의 손길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손을 뿌리치지 못하셨나 보다.

우리는 울산 중구 지역에 계시는 두 분을 만나러 갔으나 한 분은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안 되어 뵈지 못하고 선생님만 다음에 다시 방문하셨다고 한다.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보호자인 남편분과 와상상태인 환자분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한다. 방문간호의 애환이 느껴진다. 그래서 방문한 환자분은 80대 남자분으로 말기 암 환자분이었다. 단독주택에 환자분과 부인 그리고 결혼한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부인분이 며칠 전 심장문제로 입원해 계셔서 다니시던 요양보호사 분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환자분을 돌보아 주셨고 중간중간 부인분의 안부전화가 계셔서 환자분은 편안해 보였다.

처음에 통증의 정도에 대해 물어보시고 진통제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먹는지 변비는 없는지 감기 증상은 어떤지 신체증상에 대해 물어보시고 부인분이

안 계셔서 힘든 점은 없는지 아드님 사업은 잘 되어가는지 등의 가족들의 안부도 물으시면서 가정 호스피스 이론 과정에서 배웠던 순서대로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역시 호스피스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은 간호사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이 환자분도 처음에는 마음을 잘 열지 않고 가정 호스피스를 받기를 두려워 하였으나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있으니 편안한 마음이 들고 통증 조절도 잘 되었고 이틀에 한 번 정도 간호사의 방문이 있어 삼박자가 잘 맞아져 잘 적응하는 듯 하였다.

물론 가정 호스피스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간호를 위해 집에 주 보호자가 같이 거주해야 하고 환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가정 호스피스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까웠지만 이러한 환자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 호스피스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산 성모병원이 완화의료센터를 연지도 10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것을 느낀다. 올해 8월부터는 에이즈나 천식과 같은 비암성질환 환자도 호스피스에 들어간다고 한다. 전국에 호스피스 기관 자체도 많지 않지만 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가정 호스피스가 확대되어 조금 더 많은 환자들에게 질적 간호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김수연
수간호사

주님 곁에 계신 올 엄마께

사랑하는 엄마께 아들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짧은 시간 처음으로
엄마께 수없이 되뇌인 말들이
꼭 두 달 전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
눈은 허공을 향해 미동조차 없던
엄마의 그 모습을 그리며
오늘도 열심히 힘내어 살아야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되잡아도
행동은 영 어색하기만 하고
꼭 부여잡은 손 없어도
온기가 느껴지던 그 순간을
애써 지우려 하는
아들의 모습을 용서해줘
엄마의 유골을 인적 없는 야산에
홀쭉리고 돌아설 때
엄마 이젠 안 울겨야 하고 돌아섰는데
하루가 가고 또 가고
새록새록 떠오르는 사랑하는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사랑해

주님 곁에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계실 엄마
너무 그리워 꼭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만 같은데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 주체하기 어려워
생각을 지우려 하는 모습에 냉랭해지고
또 다시 추스르고...
엄마가 마지막 계셨던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을 적어보네
56년간 옆에서 지켜주신 올엄마 고마워
3년여간 입원과 외래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봄날인 것을 지금에 와서 느껴지는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올 남매를 키우는 엄마
고생만 하신 엄마 정말 미안해
주님 곁에선 늘 건강해야해
엄마께 꼭 가고 싶어 보고 싶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2017년 8권역 협의체 첫 회의

2017년 2월 9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새롭게 8권역 협의체 임원을 선출하여 협의체의 새로운 면모를 다지며, 호스피스의 현안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제기관의 협조와 응원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병자의 날 행사(2월 10일)

올해로 25회를 맞는 세계병자의 날, 음악회 및 의료 봉사과 더불어 호스피스병동의 환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손글씨로 카드를 적어 꽃 선물과 함께 환자와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 및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활축하행사(환자와 가족을 위한 특식 만찬, 계란과 쿠키 선물)

예수부활의 참의미와 축하를 담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활계란 선물을 나누었고 환자와 가족, 팀원, 도우미 등 80여명이 참여한 특식 만찬의 시간을 통해 행복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1, 2차 사별가족모임(2월, 4월)

사별의 아픔과 아직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애도의 시간이 긴 사별가족들의 체험, 생활, 아픔, 추억, 그리움 등을 나눔과 감사를 통해 위로와 격려의 시간으로 풀어내어 공감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별가족위험도 사정을 통해 돌봄의 시간들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2017년 제5차 부산경남지역 호스피스 완화도우미교육

2017년 4월 25일~4월 27일까지 104명이 3일 동안 본원 4층 베네딕도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본원에서 34명이 실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NEWS

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상반기 심화교육 (2월, 3월, 4월)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을 유지하기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유지를 위한 재교육 및 심화교육(주제 : 친절교육, 스트레스관리, 심폐소생술 외 영적지지 강화를 위한 미사)을 월별로 실시하였다.



2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주관 제17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참석 및 수상

2017년 4월 26일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봉사자대표자분들과 팀원이 함께 참석하여 전국의 회원들과의 자리를 빛내었다. 이날은 한국 로고테라피 연구소장 김미라 박사의 “삶의 의미와 호스피스”의 주제 강연을 통해 치유가 어려운 병이나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환자를 돌보며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을 재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중 김영희(루시아)님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환자 돌봄과 임종 돌봄은 물론이며 사별 가족 돌봄에 있어서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큰 사랑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몫을 지속하기를 바란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가입안내

호스피스 후원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사무실의 Fax, 전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후원회원에게는 호스피스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 참여신청서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기부자 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기부약정의 효력으로 영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명 : _____

금액 : 일금		원 (₩)	
☐ 일시기부 :			
☐ 정기기부 : 매월		원	회(년)
※ 납부안내 : ☐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자동이체(CMS)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동의서명 :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후원기금은 소정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펼치는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실천 사업을 지지하며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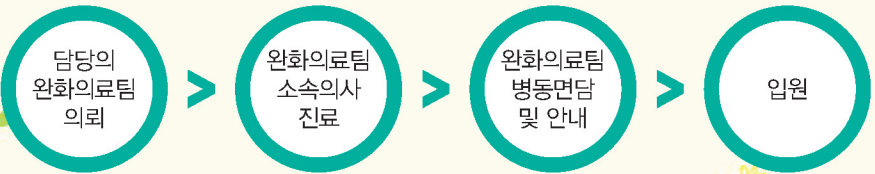
약정인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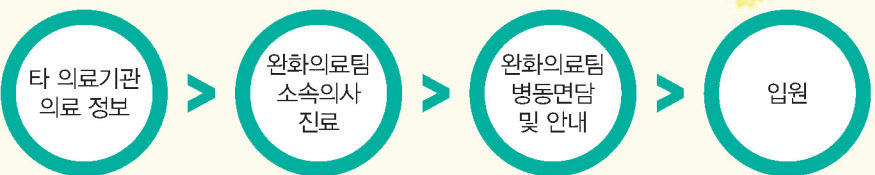
신청서 보내주실 곳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관련 문의사항 Tel 051 933 7133 Fax 051 932 8636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용안내

본원 입원 환자



타 기관 환자



- ※ 구비서류 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1개월 이내)
② 최근 검사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조직검사 결과지)
③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
④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시간 및 진료과 안내

- 예약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진료예약 : 051) 933-7087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
- 입원형 호스피스 : 혈액종양내과 진료 051) 933-7253
-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의학과 진료 051) 933-7971

진료상담 및 문의

- 입원형 : 051) 933-7133, 7100
- 가정형 : 051) 933-7969
- F A X : 051) 932-8636

